

3월 고충 리포트

고충 리포트는 직원 고충의 원활한 해소를 지원하고자 매월 1회 제공됩니다.

고충 개선 사례 공유

*노사상생센터 고충 개선 사례 소개

임산부·육아
직원 대상
재택근무시행

【Q】코로나19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휴원하였습니다. 아이들의 건강과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, 임산부·육아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.

- ✓ **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대책방안으로 임직원들의 요청을 감안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임산부·육아직원(개학연기, 휴원)·건강취약자 등에 대해 필수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.(2.26~)**

2월 고충 Review

코로나19
대응

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연수프로그램 중단, 수련관 폐쇄, 재택근무 시행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관련하여 직원 분들의 문의·요청사항도 많았는데요. 대외적 악재로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고충에도 귀 기울여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.

※ **KT종합상황실의 예방수칙 및 재택근무 시행 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수 부탁드립니다.**

신설대부제도
(복지)

2월은 올해 신설된 긴급생활자금과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이었습니다. 신설된 제도라 직원 분들의 관심이 많았는데, 현장 기관 자율선정이니 만큼 대부를 정말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·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.

대학장학금
(복지)

3월 개강을 앞두고 올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직원 분들의 대학장학금 지원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. 제도 시행 2년차로 안정화 된 상태지만 신규 수혜 직원 분들께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제도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※ **대학장학금 최초 신청 자녀의 경우 신청 전 대상자녀 등록이 필요합니다.(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必)**

3월 예상되는 고충

신입사원

인사이동/배치 후 적응에 힘들어하는 주니어 직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. 특히 **신입사원과 공감대 형성으로 부서활동에 시너지가 발휘되도록** 힘써주시길 바랍니다.

재택근무
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**직책자/직원 모두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** 힘써주세요.

건강관리

임직원 건강유지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**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회의/출장 금지, 철저한 사옥방역 등 관심을 기울여주시기** 바랍니다.

[특집] 밀레니얼 세대의 이해

“점점 늘어나는 밀레니얼 세대 직원! 이해하고 계시나요?”



“사내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. 이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케어활동에 힘써주세요.”

※ 밀레니얼 세대는 보통 1980~1990년대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.

세대 분석

【밀레니얼 세대의 특징】

✓ 성장 및 사회진출 시기

- 풍요로운 성장기를 누린 반면, IMF로 직장에서 밀려난 부모 세대를 목격
-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 진출 시 어려움에 직면
-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보다는 즐기려는 태도가 강함(위라벨 중시)

✓ 주요 매체에 따른 성향

- 스마트폰 세대로 인터넷이 소셜미디어가 되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세대로 쌍방향 소통에 익숙하며, 자유로운 소통을 선호함

✓ 사회적 성향

- 신기술에 밝고 현실적이며, 지속적·협력적 의사소통 방식 선호
- 희생을 싫어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업무 시에는 Co-work를 중시하는 이중적 성향 존재

【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전략】

- ✓ **비금전적 보상!** 금전적 보상을 넘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Care
- ✓ **창의적 근무환경·분위기!**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공간·분위기 및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조성
- ✓ **일방적 업무지시 보다는 동기부여!** 업무 할당 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 필요. 즉각적 피드백 및 자율성 보장

【회사 지원제도】

- ✓ 학위 및 사외자격증 취득 지원, 직무 이러닝/어학아카데미 등 자발적 학습을 위한 인프라 운영
- ✓ 40세 이하 대부기회 확대, 출산축하금 상향, 자녀교육보조비 신설, 미혼자 부모님 건강검진 지원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개선·운영

Care 전략
및
지원제도



“부서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법과 만약 성희롱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,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”

※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는 남·여 2인의 성희롱고충상담원을 지정, 성희롱 예방교육(off-line)과 직원 고충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 시행

처리기준

✓ 성희롱 관련 고충 신청을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

▶ 지체없이 상담 및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진행

※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함

- 사건 접수 즉시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성희롱 고충케어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
- 전담조사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신속한 사건 조사(20일 이내 완료, 10일 연장 가능)
- 성희롱 성립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, 기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

※ 기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

- ① 위원장 포함 임직원 7인으로 구성(사내 성희롱 고충 심의전문가 2인 포함)
- 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6/10 초과 금지(남:녀=3:3)

※ 성희롱으로 인정 시 ① 가해자 징계 ② 피해자 보호조치 ③ 재발방지대책 마련

☞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1항 :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노동법률 Q&A

【Q1】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?

✓ 네, 성립될 수 있습니다. 피해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인식, 대처법을 몰라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껴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.

【Q2】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?

✓ 아니요, 의도 여부는 성희롱 성립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되며,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.

【Q3】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?

✓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는 사내 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러나 성희롱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※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행위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부과

【Q4】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?

✓ 네, 성립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.

의료비제도 주요내용

KT는 진료에 의한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■ 지원대상

- 본인 및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와 만 26세 이하 자녀

※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그 외 가족(부모 등)은 지원대상이 아니며,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지원연령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

■ 지원범위

- 진료비 영수증상 급여성 본인부담금이 월별 가족합산 2만원 초과 시 초과액

- 비급여 항목 중 MRI/CT/초음파 진단료의 100%를 지원

↳ 단체보험에서 지급받은 MRI 진단료를 제외한 차액만 지급(입원의료를 선택한 직원은 MRI 30% 지원, 70%는 보험사 청구)

- 직원의 통원의료비 + 배우자·자녀의 입·통원 의료비(약제비 포함)

↳ 직원의 입원의료비 지원 제외(단체보험의 입원실손보험으로 지원)

■ **연간한도** : 진료년도 기준 **최대 1천만원**(가족합산)

■ **신청기한** : 진료일자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가능

■ **지급일정** : 매월 10일 또는 25일(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)

■ 신청방법

- PC : 'ERP > HR > 개인업무 > 복지후생 > 신청 > 의료비'에서 신청

- 모바일 : '모바일 kate > 마비서 > 의료비'에서 신청

※ 의료비 신청 시 참고사항

① 월별 2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료월별로 신청해야 하며, 5M 혹은 첨부파일 10개 이상인 경우 우편 발송

↳ 제출(문의처) : 분당 업무지원센터 의료비 담당(T.031-727-4232, E-mail : support@kt.com)

② 신청대상자 등록 : 직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인지 확인 (PC에서만 가능)

✓ 의료비 신청대상등록

- 직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인지 확인(배우자, 만21세 이상 자녀는 1년마다 재등록 필요)

※ 건강보험공단(T.1577-1000)에 등록대상가족의 '자격확인서'를 요청하여 신청대상 등록화면에 첨부 후 승인요청(신청시점의 현행자료 첨부必) → 본사업무지원센터에서 익일 승인

자주 묻는 질문(FAQ)

[Q1] 한방·치과치료 시 발생한 통원의료비도 지원되나요?

✓ 회사 의료비는 진료의 세부 내용과 상관없이 "진료비 영수증"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.

※ 진료비 영수증 상의 급여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성 MRI/CT/초음파 진단료의 100% 지원

[Q2] 지급 완료된 월의 의료비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의료비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?

✓ 네, 누락된 의료비는 추가신청 가능합니다. 당월 의료비가 이미 지급된 경우는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※ 기입력 건의 의료비가 미지급된 접수·승인상태일 경우는 업무지원센터로 취소 요청하여 제출 상태로 변경하여 제출 취소 후 수정하여 다시 신청